

“21세기 대비 새로운 꿈과



친애하는 정보통신가족 여러분에게 1997년 정축년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으로 건강하시고, 개인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도 산간오지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정보통신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뜻깊은 새 출발의 날을 맞이하여, 저는 올해가 정보화시대의 새장을 여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꿈과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보통신 가족 여러분, 정보화시대로 일궈어지는 21세기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3년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기의 중심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정보화시대의 세계 주역이 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정보화는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기약하는 기본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를 통하여 이미 달라진 대내외 경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달라질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보통신부에 주어진 금년도의 기본적 과제는 국가사회의 정보화수준을 끌어 올리면서, 정보화를 뒷받침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각 부처나 공공기관의 정보화 추진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이끌어 가는 기업이 창의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더 좋은 통신 서비스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저는 구체적으로 다음 몇가지를 올해 정보통신정책 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확정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정보화 촉진 10대 중점 과제’를 실천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보화의 혈맥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그 다음 민간사업자들이 시장기능에 따라 이를 완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비전을 마련합시다”

아울러 산업, 정부, 환경, 교육 등 국가사회 핵심부문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활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사생활의 보호를 비롯한 정보보호 제도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정보통신산업이 우리의 유망 미래산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적극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해 마련한 ‘정보통신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 등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의 고급두뇌들을 총동원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할 체제를 확립하고,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대학을 지원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전문대학원도 설립할 것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이 우리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소프트웨어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도 지난 해 서울에 이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4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두뇌산업은 창의력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젊은 세대들의 창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간 협력을 증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도 더욱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통해 정보통신분야에서 신규 고용이 늘어나도록 하겠으며, 특히 중소기업 분야에 신세대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정착시켜, 더욱 값싸고 품질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내전화와 시외전화부문에 각각 1개의 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해 국내시장의 경쟁체제를 마무리하고, 각종 통신서비스의 질은 높이되 값은 싸지도록 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간에 공정한 경쟁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경쟁토록 하면서 경쟁의 규칙은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 경쟁의 결과가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의 공정경쟁을 감시·조정하기 위해 ‘통신위원회’를 준사법적 규제기관으로 전문화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위원회 활동을 실효성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로, 우정사업에 민간경영기법을 가미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창의성과 생산성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사업도 이제는 더 이상 경쟁예외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부의 총인원 42,000명의 약 90%가 우정사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가 혁신되어야만 생산성이 높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례법을 바탕으로 우정사업 운영체계를 과감히 개편함으로써 우체국도 책임경영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여 나가면서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정보센터로 탈바꿈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대내외 금융환경에 대비하여 체신금융업무도 전문화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 우리의 우체국들이 우편·금융·정보분야에서 생산성이 높고 서비스의 질이 민간기업을 앞질러 갈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로 적극 대응하면서 전파이용 환경을 선진화하겠습니다.

방송기술개발을 고도화하기 위해 방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위성방송채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며 종합유선방송 서비스의 보급 확대와 신기술 개발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파이용체도를 개선하고 불법무선설비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제가 직원 여러분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발전을 선도하는 부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겠습니다만, 이 또한 보람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는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이면서 아울러 도전과 시련의 시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각오와 노력으로 이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사람들이며,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뒀안길에 낙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1등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본부는 물론이고, 지방에 있는 모든 우체국에 이르기 까지 이 시대를 앞서가는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전력해 나갑시다.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서 긍지를 갖고 변화와 발전의 주체로서 눈앞에 다가 올 21세기를 대비해 새로운 꿈과 비전을 마련하는 한 해를 만들시다.

감사합니다.

1997년 1월 3일

정보통신부장관 **강 봉 균**